

## 단호박도넛

동아일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밥을 먹고나서도 단 것이 맹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계피설탕 가득 묻힌 도넛을 하나 먹어주면 좋겠다 싶은 기분 상태가 있죠. 제가 지난 주 어느 날 그랬답니다. 그래서 단호박 도넛을 만들어 보았어요. 요즘 작은 사이즈의 밤호박을 쪄서도 먹고, 맛탕으로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요. 달달한 설탕 묻힌 도넛으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보았어요. 역시나 밥을 먹고나서도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드립해서 내린 커피와 먹으니.... 우왕~! 그 맛이 죽음입니다.

혹시 생도너츠 맛을 아시나요? 기름을 살짝 머금고 속에 팝앙금이 들어 있고, 설탕 가득 묻힌 그 도넛 말이에요. 그런 도넛 느낌도 나면서 또 단호박의 예쁜 색감과 맛이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간식이에요. 만드는 과정도 즐겁고... 그보다 당연히 먹는 즐거움이 더 크답니다. 쉽고 맛있다! 참 쉽게 만드는 노란 색깔이 예쁜 단호박도넛!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 Recipe

(4-5인분)

[자율 및 밥술가락 계량]

- 주재료: 핫케이크가루(200g), 단호박찐 것(180g), 식용유(2컵)
- 문침설탕재료: 설탕(4), 시나몬파우더(0.5), 소금(약간)



1. 작은 사이즈의 밤호박을 쪄서 완전하게 익힌다.

2. 핫케이크가루(200g)를 담은 볼에 찐 단호박(180g)을 손으로 으깨 넣는다.

3. 핫케이크가루와 단호박 찐 것이 잘 섞이도록 반죽한다(단호박에 따라서 수분의 양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반죽이 되다 싶을 정도로 조절해서 넣어 줍니다).

4. 약 15그램 정도씩 분할을 하여 한 입 크기로 둥그랑고 단단하게 반죽한다